

다이쇼인 절: 전체 개요와 역사

다이쇼인 절은 해발 535m의 미센 산 기슭에 위치한 거대한 불교 사원으로, 진언종(불교의 한 종파)의 오무로파에 속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다이쇼인 절은 806년에 진언종의 창시자인 구카이(774~835)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구카이는 미센 산에 올라 진언종 수행의 중심이 되는 의례인 호마법(불을 피우며 기도를 올리는 의식)을 비롯한 다양한 수행과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구카이가 산에서 피우고 남았다는 불씨는 꺼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다이쇼인 절은 12 세기에 남겨진 기록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미야지마 섬이나 가까운 곳에 웅장한 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원의 본당은 도바 천황(1103~1156)의 명에 따라 지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도바 천황은 미야지마 섬을 방문하여 영토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바 천황의 방문은 수 세기에 걸쳐 다이쇼인 절과 조정 사이에서 특별한 관계가 지속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바 천황의 아들 중 한 명인 가쿠쇼(1129~1169)는 오무로파의 총본산이자 황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토 닌나지 절의 주지였습니다. 가쿠쇼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다이쇼인 절을 좋아했고, 사원은 이윽고 강력한 권력을 지닌 닌나지 절의 말사(본사에서 갈라져 나온 절)가 되었습니다. 은퇴한 다카쿠라 상황(1161~1181)이 1181년에 미야지마 섬을 방문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를 보면, 다이쇼인 절을 이쓰쿠시마 신사의 '벳토지(신사를 관리하는 절)'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절이 지닌 권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이쇼인 절은 황실의 후원에 힘입어 16 세기에는 닌나지 절의 주요 말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권력이 최전성기를 자랑하던 시기에는 12 개의 말사를 거느리며 수많은 권력자들에게 두터운 신앙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본 전국을 통일했던 무사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 또한 그중 한 명이었으나, 정권이 안정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던 다이쇼인 절에도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메이지 시대(1868~1912)로 접어든 1868년, 신정부는 근대 민족주의를 확대할 수단으로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神道)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신도와 불교를 강제로 분리하는 명을 내렸고, 일본에서 1,000년이 넘게 이어져 내려온 신도와 불교의 융합(신불습합)이라는 전통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일본 각지의 수많은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다이쇼인 절 또한 소유했던 토지와 지위를 많이 잃고 말았습니다.

1887년에는 화재로 인해 몇 채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이 소실되면서 추가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사당과 문, 그리고 나머지 구조물들은 모두 화재로부터 몇 개월, 몇 년 또는 수십 년 후에 지어진 것들입니다. 미센 산 정상에서는 다이쇼인 절의 스님들이 구카이의 ‘기에즈노히(꺼지지 않는 불)’를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데, 이곳 또한 오랜 세월에 걸쳐 반복된 자연재해를 경험하면서 모든 건조물들을 새롭게 재건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 정상까지는 다이쇼인 절에서부터 하이킹 코스를 따라 1시간 반이면 도착합니다.